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하라!”

남전련 하계수련회, 전도 사명 다지며 은혜 가운데 성료

남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차천용 장로) 제39회 하계수련회가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한화리조트 대전 파로스에서 개최됐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충청지역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큰 장마비로 당초 예상 인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려와는 달리 2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큰 은혜를 나눴다.

개회예배는 회장 차천용 장로의 사회로 열린 가운데 이장호 장로의 기도 와 나경하 장로의 성경봉독 후, 총회장 이종만 목사가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총회장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은총이 모두에게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며, 기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담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성결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성결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총회와



지교회, 남전도회 부흥을 위해 강환준 장로 노재익 장로가 나서서 각각 기도했다.

수석부회장 배태호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환영 및 축하의 시간에는 부총회장 황제돈 장로, 성결신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김성진 목사, 한국평신도단 체험의회 회장 오수철 장로, 기성남전도회연합회 회장 이봉남 장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이혜경 권사, 충남지방회 회장 박상혁 목사가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는 총회보고와 함께 축사를 전했다.

오후에 진행된 세미나는 서울신대 차준희 교수가 ‘중(風) 기(祈) 도(道)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차준희 교수는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바람 불어올 때 기도하며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 막힌 길도 기도하면 뚫린다. 없는 길도 생긴다. 기도는 길을 만든다.”며 중(風) 기(祈) 도(道)를 강조하고 “내림이 기도를 기억

하는 몸으로 만들어야한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내 몸이 기억하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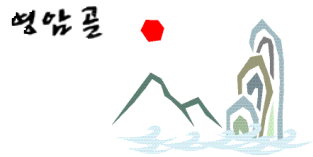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미나는 남전련 부장 이상화 목사가 강사로 나서서 열면 강의를 이어갔다. 이 목사는 ‘행군 나팔소리에’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남전련의 발전을 기원했다.

익일 아침예배는 남부교회 박요섭 목사가 ‘위기의 시대 우리가 간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른 신앙인의

자세와 남전도회원으로서 전도의 사명”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날 남전도부장 이상화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대한 감격이 넘쳐 설기는 교회와 교단의 발전에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회장 차천용 장로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다짐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남전련 회원들이 되자”고 말했다.



바짝 다가온 AI(인공지능)

1년 7개월 만에 다시 찾은 LA 공황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입국심사를 마치고, 마중 나온 딸의 승용차에 오르려다 보니 예전 차가 아니다. 앞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니 놀랍게도 스스로 운행한다. 운전석 앞에 있는 커다란 모니터 화면에 진행현황이 그대로 그려진다. 말도안 들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이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모든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기에 자가운전 때보다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되어도 훨씬 안전하고, 또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기에 매연 걱정이 전혀 없으며 연료비도 저렴하다고 한다.

다음날 손녀와 다운타운에 나가는데 차가 와 있다 하여 따라나갔더니 로봇 택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핸드폰을 대고 차 안에 발을 들여놓는데, ‘Hi, Emma’라며 인사를 한다. 안전벨트를 매니 제 알아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운전자 없는 로봇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인도 쪽으로 커엿게 생긴 유모차 크기의 물체가 움직인다.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신호대기 한다. 무엇이나 물으니 Delivery Robot(배달 로봇)이라 한다. 로봇 배달은 서울에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실제 운영되는 현장을 보니 새삼스럽다. 로봇이 의료, 노동 현장, 전장 등에서 부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확인하니 적지 않은 문화적 충격으로 내게 다가왔고 대한민국 사회도 머지않아 그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AI가 대한민국에 처음 널리 소개된 것은 10여년 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아닌가 싶다. 그 당시 1승을 거둔 이세돌은 인간과 AI의 차이가 ‘고정관념’에 있다고 한 것이 떠오른다. AI는 고정관념이 없기에 열매일이 없어 인간보다 창의적일 수 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미래를 향한 눈이 열릴 수 없다.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보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AI는 앞으로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일상생활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성경)의 토대 위에서 AI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바쁜 일 때문에 오늘은 AI 도움으로 설교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설교자는 없었으면 좋겠다.

LA에서 清水 ehc3s@hanmail.net

제2차 임원회의,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 등 다뤄 신학검증위원회, 디지털미디어사역위원회 신설 예정

105회기 제2차 임원회의가 지난 7월 21일 총회본부 대에배실에서 개최됐다. 9명의 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5월 개최된 제105회 정기총회 결산의 건이 보고되었다. 이날 임원들은 당해년도 결산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홍보비의 집행과정에서도 너무 늦게 집행되어 총회 홍보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신학검증위원회 설치의 건이 보고

되었다. 총회장 공약사항 중 하나인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의 교수임용 시 신학사상에 대한 검증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건으로 이은성 오현철 교수, 김영택 임시영 윤성철 목사를 위원으로 하고 이외에도 부총회장을 당연직으로 참여케 하여 임원회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다.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회는 지난 7월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5대 이사장 후보로 이규 목사

(시미티션을 선출하여 인준을 요청하였다. 이날 임원들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실행위원회에 상정기로 하였다. △학장 인준의 건도 함께 다뤄져 제15대 학장 후보로 김원태 목사(군산하늘빛)를 이사회의 추천대로 상정하여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요청기로 하였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 인준의 건이 처리되었다. 성결신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28일 이사회를 갖고 제16대 이사장으로 현 이사장직무대행인 김성진 목사를 선출하여 인준을 요청



하였다. 이를 놓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회기 연속성에 대한 문제이며 회기가 바뀌어서 자중소멸된 안건”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산하기관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상정

된 문서이며 학교의 경우 총회와는 회기도 다르므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며 법제부를 통해 자문을 받아 문제의 소지가 없으면 실행위원회에 상정기로 했다. >2면에 이어

2026 목회자부부 하계수련회

주제

예수 안에 심, 성령으로 충만!

일시

2026. 8. 24(월) ~ 26(수)

장소

여수 베네치아호텔 <https://www.yeosuvenezia.com>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61-13(수정동 774-4) ☎061-664-0001

대회장

이종만 목사

준비위원장

이상문 목사

준비부위원장

황제돈 장로

운영본부장

권순달 목사

진행위원장

강명국 목사

운영총무

임태진 목사

운영서기

김규식 목사

운영회계

박정식 장로

운영부회계

김용빈 장로

조 대 의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 교회와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심, 그리고 사역의 회복을 위하여 목회자 하계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목회 현장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하계수련회는 함께하시는 모든 목회자 한 분 한 분의 귀한 동참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부디 귀한 박람음으로 함께하시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정중히 초대드립니다.

저녁 집회

찬양 집회

황성은 목사
오메가교회 담임
비전사역 마스터 대표
대전성서회 운동본부 부회장

용기장이 찬양단

수련회 일정표

	24일 (월)	25일 (화)	26일 (수)
오전		조식(찬양)	조식(찬양)
오후	▶ 등록 및 숙소 배정 썩신	조식(찬양) 《자별회 별 자유여행》	《매일예배》
저녁	《개회예배》 ※찬양지도: 목혜사(목혜사) ※찬양: 용기장이 찬양단	《자별회별》 강사: 황성은 목사(오메가교회) 《기도회》 인도: 김명국 목사	내년에 만나요~

입금: 국민은행 533301-01-164688 / 예금주: 예성총회
※ 개인: 20만원 / 부부: 30만원
(저녁 1인당 5만원, 방이 추가되는 동반가족은 1인 10만원, 기타 경비 별도)